

경제적 압박과 저소득층 부부의 친밀성: 남편과 부인의 관점의 다각화와 갈등반응행동의 기제 연구

현 경 자

우리사회복지연구소

박 선 영[†]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제압박은 저소득층 부부의 사회인지를 협소하게 하여 갈등에 대한 기능적 대응과 부부관계의 친밀성을 방해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족스트레스 과정 중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부부의 인지역량으로서 관점 다각화와 건설적 행동이 경제압박의 영향을 부정적 행동과 차별화되게 받는 기제와 그러한 기제에서 남편과 부인의 유사점과 차이를 살펴 이들의 취약성과 함께 회복력에 관련된 요인들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서울시 저소득층 부부 183쌍의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압박이 부부친밀성에 미치는 효과가-관점다각화와 갈등반응의 건설적, 부정적 행동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연구모형과 부부친밀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포함된 부분매개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설정하여 남편과 부인 집단 각각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차이를 다집단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예측대로 남편집단에서는 경제압박이 관점다각화를 감축시킴으로써 건설적 행동이 감소되고 부정적 행동이 증가되는 인지행동 기제에 의해 부부친밀성을 저해하는 완전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반면 부인집단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행동 반응의 젠더차 이론이 시사한 바와 일관되게 경제압박이 관점다각화를 유의하게 위축시키지 않았고 직접 부부친밀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컸으며 건설적인 행동을 직접 감소시킴으로써 부부친밀성이 저해되는 부분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관점다각화 자체는 예측대로 두 집단 모두에서 건설적 행동을 촉진하고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부인집단의 관점다각화만 건설적 행동을 통해 부부친밀성을 실질적으로 도왔다. 다집단분석 결과, 부정적 갈등행동이 부부친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일하게 차이가 났다. 부정적 행동은 남편집단에서 부부친밀성을 낮춘 반면 부인집단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저소득층 부부 연구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저소득층 부부, 경제압박, 관점의 다각화, 부부관계의 친밀성, 갈등반응 행동, 인지-행동기제

[†] 교신저자 : 박선영,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704-701)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E-mail : spark488@kmu.ac.kr

저소득층 부부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압박은 생계와 교육비 긴축 뿐 아니라 부채와 파산 등을 동반하여 부부갈등을 심화시키고 부부 친밀성과 같은 결혼의 질¹⁾을 위협할 수 있다 (현경자, 2008; Conger, Elder, Lorenz., Conger, Simons, Whitreck, Huck, & Melby, 1990; Conger, Rueter, & Elder, 1999). 경제압박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스트레스 모형에 입각한 연구들(예: Conger et al., 1990, 1999)에 의해 정서적 고통과 부부갈등을 통한 과정으로 그 동안 규명되어 왔고 그 외 다른 인지-행동 경로들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스트레스는 그 근원이 무엇이든 주의(attention)가 해소해지도록 자극하므로(Wells & Matthews, 1994), 경제압박과 같은 스트레스가 대처 및 문제해결에 유용한 인지 활동에 영향을 미쳐 부부갈등을 키우고 결혼의 질을 저해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경제압박에 의해 위축될 수 있는 인지역량 중 관점의 다각화는 경제적 곤란을 겪는 남편과 부인이 자신과 주변의 입장, 상황 등을 다각도로 살펴 건설적으로 갈등에 대응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여(현경자, 2012) 부부의 친밀성을 보존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따라서 경제압박이 그러한 인지역량을 저해하는지, 또 관점의 다각화가 실제로 부부들이 보이는 갈등반응 행동의 긍정성을 격려하고 부정성을 낮추어 저소득층 부부의 친밀성에 기여하는지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경제압박으로 손상될 수 있는 사회인지의 특성과 그러한 상황에서 부부의 친밀성을 위협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인지행동 기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어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의미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가족스트레스 모형 연구들에서 부부는 경제압박으로 인해 정서적 고통을 겪으며 좌절하고, 온화함은 줄어들며 갈등이나 공격성이 증가되어 결혼의 질의 저하와 결혼관계의 불안정을 경험한다. 이 부류의 연구들(예: 현경자, 2008, Kwon, Rueter, Lee, Koh, & Ok, 2003; Vinokur, Price, & Caplan, 1996)에서는 결혼의 질에 관한 성과변수의 분산이 약 13-50% 설명되어²⁾ 아직 밝혀지지 않은 변인들의 영향을 시사한다. 게다가 경제압박에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는 부부들을 고려하면, 정서적 고통과 부정적 갈등행동의 경로가 아닌 보다 기능적인 인지-행동이 구성하는 경로를 통해 경제압박이 부부친밀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과정을 밝혀볼 필요가 있다. 부부친밀성은 건강한 결혼의 기초가 되고 중산층 부부를 위한 상담에서 주요 목표이자 성과로 고려되지만(윤미혜 · 신희천, 2009; 이남옥 외, 2011; Laurenceau, Barrett, & Rovine, 2005) 경제압박이 부부친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밝혀진 것이 많지 않아 저소득층 부부들의 친밀성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축적된 부부관계 지식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의미가 있다.

1) 결혼결과 또는 성과(marital outcome)는 관계만족, 결혼만족 등 결혼의 질과 결혼불안정, 결혼곤란(marital distress) 등 결혼의 안정성(현경자, 2008, Conger et al., 1999)으로 구분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결혼의 질과 관련된 부부의 친밀성에 초점을 둔다.

2) 이는 가족스트레스모형을 활용한 주요 연구들 몇 가지를 취합해 추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Conger 등(1990)에서 결혼안정성이 남편 31%, 부인 51%, Conger 등(1999)에서 남편과 부인의 결혼 디스트레스가 31-35%, Kinnunen & Feldt(2004)에서는 결혼적응에서 남편 13%, 부인 20%, 권희경(2009)에서는 결혼만족이 29-39% 설명되고 있다.

경제압박과 부부친밀의 관계에 작용하는 인지체로서 관점의 다각화는 이기적이고 협소한 시각을 벗어나 인지의 폭을 확대시키므로 여러 사람과 상황의 다양한 측면을 살피고 그에 따른 의미를 새겨서 당사자의 인식, 감정, 행동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성급한 결단이나 오해, 급류하는 감정을 늦출 수 있어 부정적 행동을 조절하며 사태에 보다 건설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 (Fredrickson, 2000; Langer, 1989, 2002). 경제압박 하에서 이러한 인지성향이 얼마나 보존되어 갈등을 처리하는 데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다. 하지만 부정적 감정을 재해석하거나 다르게 귀인하며, 현실적 신념을 갖고 해결과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인지행동의 예들(예: 권희경, 2009; Conger et al., 1999; Bradbury & Fincham, 1992; Gottman, Markman, & Notarius, 1977)을 보면 관점의 다각화가 건설적 행동을 촉진하고 부정적 행동을 약화시켜 부부의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남녀의 생리행동적 반응이 질적으로 다른 점에 대한 논의와 연구 결과(예: Smeets, Dziobek, & Wolf, 2009; Taylor, Klein, Lewis, Gruenewald, Gurung, & Updegraff, 2000)를 참작하면 경제 압박이 남편과 부인의 관점다각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Taylor 등(2000)에 따르면 남성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싸우려고 하거나 도망가는 fight-or-flight 반응을 보이고, 여성은 오히려 더 자녀를 챙기고 주변을 살피며 원조망 구축에 힘쓰는 tending-and-befriending 반응을 보인다. 경제압박이 주의를 협소하게 하여 관점다각화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챙기고 주변을 살피는 여성들의 대처 반응

은 그러한 인지성향을 도리어 활성화시켜 이들의 관점다각화가 스트레스 하에서 남성들의 그런 성향에 비해 보존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측되는 남편과 부인의 인지행동 차는 기존의 가족스트레스 연구들에서 검토된 바가 없다.

생리적 기능의 성차와 성역할의 사회화로 스트레스의 지각, 반응, 대응 등에서 시사되는 젠더차를 고려할 때, 부부가 하나의 체계로서 공통으로 경험하는 것도 있겠지만 경제압박이 관점다각화를 위협하는 방식에서, 또 관점다각화가 순기능을 발휘하는 데서 남녀차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규명은 경제압박 속에서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저소득층 부부의 잠재 자원을 밝히고, 남편과 부인이 경제압박과 같은 스트레스에 다르게 대응하며 강점을 발휘하거나 취약함을 보이는 경로에 대한 통찰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저소득층 부부의 결혼과정에 관한 연구 자료(현경자, 2008)의 일부와 추가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두 가지 연구목적을 수행하였다. 첫째, 경제압박으로 저소득층 부부의 친밀성이 저해되는 과정에서의 인지행동기제를 규명하기 위해 관점다각화와 갈등반응행동의 매개역할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압박이 스트레스 대응에 유용한 관점의 다각화를 저해함으로써 부부간의 건설적 갈등반응이 약화되고 부정적 갈등반응이 증가되어 부부친밀성이 저해되는 과정을 조사하였다. 둘째, 경제압박이 부부친밀을 저해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부인의 경험 차이가 나는 지점을 파악하여 저소득층 부부의 잠재된 강점과 가족과정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행동 반응의 젠더

차를 고려하여 경제압박이 관점다각화와 같은 사회인지의 역량을 위축시키는 지점에서의 남녀 차를 살펴보았다. 또한 관점의 다각화가 자신과 주변의 안녕을 보살필 수 있는 심리적 자원으로서 갈등반응 행동의 긍정성을 돕고 부정성을 약화시켜 부부친밀에 기여하는 잠재력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남편과 부인의 경험은 어떻게 유사하거나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이론적 배경

경제압박과 부부친밀성 간의 관계

결혼생활에서 부부가 느끼는 경제압박³⁾은 경제적 자원이 기본적인 욕구나 재정적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경험되며(Conger et al., 1999), 그런 상황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효과는 일찍이 스트레스-대처를 응용한 가족스트레스 모형에 의해 검토되었다. 이 모형은 부부 간 격화된 감정과 행동 맥락을 Berkowitz(1989)의 좌절-공격이론으로 개념화하여, 장기적인 경제압박은 좌절감을 축적하여 우울, 불안, 적대감 등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비난, 공격 같은 부정적 갈등반응을 촉진하여 결혼만족의 저하와 결혼붕괴(marital dissolution)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압박이 이처럼 결혼만족과 결혼의 안정을 저해한다면,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가깝고 정이 두터운

상태를 의미하는 부부의 친밀성 또한 그로 인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가족스트레스 모형을 미국 백인과 흑인가족, 도시 근로가족, 핀란드 가족, 우리나라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족 등에 응용한 연구들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경제압박의 영향은 직접적이기 보다 정서적 고통과 갈등인식이나 갈등반응을 통하는 간접적인 것으로 나타난다(예: 권희경, 2009; 장춘미, 2009; 조준배, 2009; 현경자, 2008; Conger, Wallace, Sun, Simons, McLoyd, & Brody, 2002; Kinnunen & Feldt, 2004; Kwon et al., 2003; Vinokur et al., 1996). 이 연구들은 경제압박에서 결혼만족 또는 결혼불안정과 같은 결혼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의 여러 경로들 중 부정적인 정서-행동의 일부에 초점을 맞추어 저소득층 부부에게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부친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⁴⁾

주요한 타인과 공통된 느낌을 나누며 의미 있는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 삶의 중심 동기이고 부부관계에서의 친밀성은 가족을 염두에 둔 헌신과 결혼이라는 제도권 내 관계를 지속한다는 점에서 일반 대인 및 연애관계와 구분된다(Laurenceau et al., 2005). 부부가 인식하는 유대감과 친밀성의 저하는 이혼을 예측하고(Carrere, Buehlman, Gottman, Coan, & Ruckstuhl, 2000),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부부 간의 친밀성이 있을 때 그러한 지지가 보다 만족스러우며(Hobfoll,

3)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경제압박'은 Conger 등 (1999)의 개념화에 의한 것이다. 이 용어는 여러 연구들에서 경제적 스트레스, 경제적 긴장 등 약간씩 다르게 기술되거나 교체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측정된 개념들에 대해서는 원 논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4) 이 연구에서는 결혼의 질 차원에서 부부관계와 관련되고 부부가 역경을 극복하는 데 핵심자원이 되는 부부친밀성에 초점을 두지만 기존 연구를 참조할 때 이와 연관되는 보다 큰 개념인 '결혼성과'와 '부부관계'도 문맥에 따라 사용하였다.

Nadler, & Leiberan, 1986), 부부가 서로 자신을 개방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행동에 대한 배우자의 반응성이 친밀성 향상에 중요하다(Laurenceau et al., 200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제압박이 부부간의 경험공유를 도울 수 있는 인지역량, 즉 관점의 다각화와 건설적 반응행동 같은 기능적 변인들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통해 부부의 친밀성과 연관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스트레스와 사회인지 관점에서 본 경제압박과 관점다각화의 관계

관점의 다각화는 자신과 타인, 사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입장과 시점에서 생각해 보고 이들의 다양한 측면을 살피는 인지적 성향을 뜻한다(현경자, 2009). 고등인지(meta-cognition)의 하나로서 관점다각화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의 흐름을 감지하며 관점을 전환시킬 수 있고, 따라서 나와 다른 타인이나 사회의 시각을 취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며 특정 상황에서도 다양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여러 모로 살피고 각 입장의 타당한 이유를 고려하는 사고 성향은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유용하고, 오해, 부정적 감정, 성급한 결단을 조절하며 여러 대안을 마련하여 역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할 것이다(Fredrickson, 2000; Langer, 2002). 실제로 관점의 다각화는 중도장애나 이혼과 같은 생애위기를 경험한 이들의 자기수용과 자기조절을 도우며 우울의 감소와 긍정적 감정에 기여하고(현경자, 2010), 부정적 전제, 느낌, 사고를 지각하며 자기를 벗어나 탈중심화하는 고등인지는 우울이나 불안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나(Teasdale, Moore, Hayhurst,

Pope, Williams, & Segal, 2002), 관점다각화가 경제압박에 대처해야 하는 저소득층 부부들에게 유용한 인지기제로서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다각화가 경제압박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자극될 때 일관된 인지기능의 특성은 주의(attention)의 폭이 협소해지는 것이다(Wells & Matthews, 1994). 스트레스 하에서 주의를 작동하는 기제를 검증한 Chajut와 Algom(2003)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주의의 범위를 좁히고 선택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해결과제에는 긍정적 결과가 초래되지만 여러 쟁점들을 비교·통합하여 대처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의 해결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경제압박이 동반하는 생계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곤란과 심리·정신적 고통 등은 저소득층 부부의 인지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고 정보인식의 선택성을 강화하여 경제적 곤란에 대한 기능적인 대처를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압박 상황에서는 부부가 협력하여 내적, 사회적 자원을 찾아내어 건설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되고 유연하며 폭넓은 사고력이 필요하여 관점의 다각화와 같은 인지역량이 유용하지만, 바로 그 상황적 스트레스가 저소득층 부부의 사회인지를 위축시켜 관점다각화를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부부가 느끼는 경제압박이 심할수록 이들의 관점다각화가 저하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관점다각화와 갈등반응행동 및 부부친밀성 간의 관계

관점다각화와 부부갈등 및 부부친밀성을 함

깨 다른 연구는 드물지만 유사한 개념들에 대한 연구들로부터 이들의 관계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계만족도가 높은 부부들을 보면 부정적 생각을 “편집”하는 능력으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역기능적 행동으로 발전하지 않고(Gottman et al., 1977, p.475), 역으로 상황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인지는 부정적 행동과 연관되고 문제해결을 방해한다(Bradbury & Fincham, 1992; Miller & Bradbury, 1995). 이런 결과들은 부부가 관점을 다각화하여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부정적 사고를 의식하고 다른 측면들을 살피며 상대 입장에서 그럴만한 다른 배경과 타당한 의미를 새기면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행동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결혼성과 관련하여, 관점다각화를 활용하는 마음챙김(mindfulness)은 긍정적이고 새로운 대안의 마련을 도와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변화를 수용하게 하고, 기혼남녀의 결혼만족(Burpee & Langer, 2005) 뿐 아니라 기혼여성의 심리적 안녕에 기여한다(이우경·방희정, 2008). 또 관점의 다각화로 촉진될 수 있는 공감능력은 기혼남녀의 결혼만족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한편 기혼여성들 사이에서는 인지, 정서, 행동이 포괄된 용서행동에 의해 매개되고(김현주·안현의, 2011),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조망수용은 일에 대한 몰입과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을 향상시킨다(Bakker, Shimazu, Demerouti, Shimada, & Kawakami, 2011; Long & Andrews, 1990).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는 관점의 다각화가 부부간의 의견일치를 도와 결혼만족을 포함한 결혼의 안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현경자, 2012).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역경에서도 관점의 다각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인지역량이 확장되어

타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하여 배우자의 입장과 경험에 대한 공감을 키울 수 있고(Langer, 1989) 갈등이 생기더라도 대안적 의미를 새기며 건설적으로 반응하게 하여(Carson & Langer, 2006) 부부의 친밀성을 보존하거나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관점의 다각화가 부부의 친밀성과 정적으로 연관될 뿐 아니라 그러한 관계가 갈등 반응의 건설적, 부정적 행동에 의해 일부 매개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경제압박과 갈등반응행동 및 부부친밀성 간의 관계

경제압박 하의 부부갈등은 자산과 경제능력이 가족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각자의 욕구, 목표, 기회에 대한 가치와 판단이 서로 충돌할 때 발생한다. 갈등은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당사자들의 심리행동적인 반응이 역기능적이 될 경우 사태의 심각도에 영향을 주고 부부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Conger et al., 1999; Fincham & Beach, 1999). 부부가 갈등 시에 보이는 공격, 요구, 철회, 합리성, 회피 등 다양한 반응들(Christensen, 1988; Gottman, 1993; Kurdek, 1994)은 크게 분노, 비판 등 유해하고 비효율적인 부정적 행동과 부부가 소통하고 대안과 해결을 모색하는 건설적 행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Birditt, Brown, Orbush, & McIlvane, 2010; Conger et al., 1999).

가족스트레스모형 연구들에서 경제압박은 부부의 정서적 고통을 통해 갈등반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주로 보이지만 소수 연구에서는 직접효과도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직 중인 저소득층 부부의 경제압박은 우울을 심화시켜 부부의 상호지지를 감

소시키고 관계철회를 촉진하여 부부만족을 저해하였고(Vinokur et al., 1996), 실직과 관련한 경제압박은 결혼적응에 부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인 한편 정서적 고통을 통한 간접효과도 보였다(Kinnunen & Feldt, 2004). Kwon 등(2003)이 서울지역 중산층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제압박은 정서적 고통을 통한 간접경로와 부부갈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결혼만족과 연관되었다. 또 다른 중산층 부부 연구(장춘미, 2009)에서도 경제압박은 부분적으로 부부의 갈등해결행동이 저하되는 것을 통해 결혼만족과 부적의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와 자료의 일부를 공유하는 저소득층 부부 연구(현경자, 2008)에서 경제압박은 부부의 정서적 고통을 통한 간접경로와 직접경로로 갈등인식과 이어졌고, 그러한 갈등인식은 부적의 갈등반응과 정적으로 연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부터 경제압박은 그에 대한 갈등인식이나 정서적 스트레스를 통해 갈등반응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갈등반응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제압박이 저소득층 부부들 사이에서 건설적 행동을 직접 저해하고, 부정적 행동을 촉진하는 경로로 부부친밀성을 저해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경제압박이 부부친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남편과 부인의 차이

경제압박이 결혼의 질을 악화시키는 경로들에서 나타나는 부부의 공통경험 뿐 아니라 젠더 차이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부인보다 일과 재정에 관련된 생활사건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부인은 경제변화에 따른 가족 내·외 사회망과 관련된 생활사건

에 보다 부정적으로 반응한다(Conger, Elder, Simons, & Ge, 1993). 또한 남편의 실직이 장기화될수록 남편보다 부인의 결혼적응이 저하되는데 여기에는 남편의 사회기능 약화와 알코올 남용 등이 관련될 수 있다(Kinnunen & Feldt, 2004). 앞서 언급된 우리나라 중산층 부부 연구(Kwon et al., 2003)에서 경제압박과 부부갈등의 관계가 부인집단에서만 정서적 고통에 의해 매개되었고, 저소득층 부부 연구(현경자, 2008)에서는 남편집단에서만 부정적인 갈등반응이 결혼만족을 감소시켜 결혼불안정을 강화하였다. 한편 결혼만족에 대한 3년간의 종단 연구(박병선·배성우, 2011)에서 여성의 결혼만족 감소에는 우울, 자존감, 갈등대처가 영향을 주었지만 남성의 결혼만족은 그러한 심리적, 관계적 변인들과 무관하게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남녀의 결혼성과 관련된 변인들이 다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경제압박으로 부부친밀이 감소되는 과정에서의 인지-행동기제로 지목된 관점다각화와 갈등반응 행동에 젠더차를 시사하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예를 들어, 공감수준은 부인집단이 높으나 결혼만족에 대한 공감의 직접효과는 남편집단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김현주·안현의, 2011), 배우자의 관점을 취하는 조망수용은 직업관련 일뿐 아니라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을 향상시키는데, 그러한 조망수용의 수준은 부인집단이 더 높다(Bakker et al., 2011; Long & Andrews, 1990).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와 결혼만족의 관계가 남편집단에서는 갈등해결행동을 통해, 그리고 부인집단에서는 부부간의 지지인식과 갈등해결행동 둘 다를 통해 부분매개 되는 연구도 발견된다(장춘미, 2009). 최근 외상 후 성장에 관한 70여개 조사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젠더차이의 효과크기는

약한(small) 수준부터 중간(medium) 수준 사이로 보고되고 여성이 남성보다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게 나타나(Hyde, 2005; Vishnevsky, Cann, Calhoun, Tedeschi, & Demakis, 2010) 경제 압박 하에서 남편과 부인의 경험 및 대응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연구를 보면 젠더차이는 그 토대를 이루는 생리적, 심리행동적 반응에 대한 실험연구들에서 보다 빈번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남성은 도구적, 성취지향적 과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혈압상승으로 반응하고, 여성은 가정 내의 일, 대인관계 등과 관련된 일로 심장계가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인지적 스트레스와 함께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Almela, Hidalgo, Villada, Espin, Gomez-Amor, & Salvaor, 2011; Rausch, Auerback, & Gramling, 2008). 이러한 정신생리적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들과 더불어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행동적 반응에서 여성은 tending-and-befriending 반응을, 그리고 남성은 fight-or-flight 반응을 보인다는 Taylor 등(2000)의 이론은 젠더화된 사회적 상황에서 남녀의 스트레스 지각과 관리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 실험연구(Smeets et al., 2009)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영화감상 후 반응 점수와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코티솔(Cortisol)⁵⁾ 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젊은 남성들은 정적 상관을, 그리고 젊은 여성들은 부적 상관을 보여⁶⁾ 남성들은 스트레스에 즉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데 비해 여성들은 스트레스 촉발 요인으로부터 탈중심화하여 다른 관심사들에 주목할 수 있는 인지적 역량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5) 부신피질에서 생성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6) 상관계수의 크기는 각각 .54, -.56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압박이 관점다각화와 갈등반응 행동을 통해 부부의 친밀성을 저해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부인의 경험이 상이한 경로를 조사하였다. 특히 경제압박이 주의를 위축시켜 관점의 다각화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부인들의 그러한 인지성향이 남편들과 달리 보존될 가능성이 높아 그 여부를 살펴보았다.

경제압박, 관점다각화, 갈등반응행동 및 부부 친밀성 간의 관계구조 모형

이상의 문헌고찰과 논의를 토대로 한 이 연구의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부부의 생활과 가족관계를 위협하는 경제압박은 부부친밀성을 저해할 것이다. 둘째, 부부친밀성에 대한 경제압박의 부적 영향은 관점다각화와 건설적 갈등반응행동 및 부정적 갈등반응행동 기제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압박은 관점다각화와 건설적 갈등반응행동을 저해하고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을 촉진하여 이러한 인지행동 기제를 통한 이중경로와 각 갈등반응행동 기제를 통한 단일 경로로 부부친밀성을 저해할 것이다. 셋째, 관점다각화 자체는 부부친밀성을 촉진할 뿐 아니라 건설적 갈등반응행동을 돕고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을 감소시켜 간접적으로 부부친밀성에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저소득층 부부의 건설적 갈등반응행동은 부부친밀성과 정적으로,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은 부적적으로 연관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가설들을 토대로 구조화된 연구모형과 경제압박이 부부친밀성을 낮추는 직접경로가 포함된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각각의 적합도와 개별 경로들에서 남편과 부인집단 간에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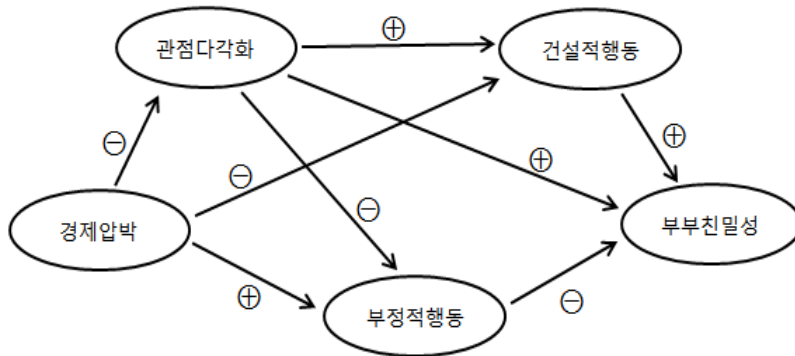


그림 1. 경제압박이 관점의 다각화와 갈등반응 행동을 통해 부부친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구조에 대한 연구모형 (+는 정적관계; -는 부적관계)

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수들 간의 관계와 그 방향을 구도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3.47명(통계청, 2007) 보다 높아 그러한 가구 소득 대비 빈곤감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⁷⁾

연구방법

측정도구

표집 및 조사대상자

경제압박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부부 183쌍(총 366명)이다. 이들은 정규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교 4학년 이하 연령의 자녀가 한 명 이상 있어 교육비 부담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 자료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2006년 11월-2007년 1월에 수집되었다. 표본은 서울시 25개 구 중 13개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구청 자료를 통해 각 구에서 저소득층이 밀집된 동 별로 14-16쌍을 선정하는 식으로 체계적으로 표집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저소득층 부부들은 자료수집 전 해인 2005년도의 세금공제 전 가족총소득액이 3인 이하 가족은 2,400만원 이하, 4인 이상 가족은 3,000만원 이하였다. 이 부부들의 평균 가족 수는 4.28명(SD=1.04)으로 2002년 도시 평균 가구원 수인

경제압박은 부부가 각종 세금을 내기 힘들고 생필품 구입이 힘들어 소비를 줄여야 하는 데서 오는 신경이 곤두서는 곤란을 의미하며 Conger와 그 동료들(1999)이 사용한 경제압박(economic pressure)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지난 1년간의 지불능력, 구입능력, 경제적 조정 등을 반영하는 세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3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불능력은 가족의 지출에 필요한 돈의 충분 정도, 고지서 지불의 어려움 정도, 월말 잔여금의 정도로 측정되었다. 구입능력은 의복, 가정용품, 의료비, 교육비 등 8개 사항에 필요한 돈의 충분 정도로 측정되었다. 경제적 조정은 가계곤란으로 취할 수 있는 대출, 보험료 및 세금연체 등 15개 대책

7) 표집방법 및 저소득층 평가 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현경자(2008)에 제시되어 있다.

에서의 경험 유무로 측정되었다. 경제압박 점수는 세 하위지표의 총점을 이용하였고 세 지표의 각 신뢰도는 남편과 부인집단 각각 지불능력 .69와 .72, 구입능력 .90과 .89, 경제조정 .75와 .76으로 나타났다.

관점의 다각화

관점의 다각화는 현경자(2009)⁸⁾가 개발한 긍정적 태도척도의 5요인 중 긍정적 관점을 다각도로 취하는 특성을 반영한 관점다각화 하위요인의 7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긍정적 태도척도는 기존의 자존감을 비롯한 긍정적 자기특성, 안녕감 척도 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긍정적 정서와 분노, 적대감, 불안, 우울 등 스트레스 관련 변수들에 대해 자존감을 통제하고도 우수한 설명력을 나타내어 그 타당성이 다각도로 지지되었다. 특히 관점다각화는 사회적 안녕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대인관계 상황에 필요한 긍정적 태도를 잘 반영한다(현경자, 2009). 관점다각화 척도는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 한 가지 이상의 해결책을 생각해 낼 수 있다' 등에 대해 6점 척도('1=거의/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6=거의/전적으로 그렇다')로 평정한다. 척도 점수는 응답의 평균이 이용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관점다각화가 활발히 이루어짐을 뜻하며, 신뢰도 계수는 남편 .76, 부인 .77로 나

8) 본 연구의 측정도구 중 관점의 다각화와 부부갈등반응에 인용된 논문들의 자료수집 시기와 학술지 게재 시기 사이에 시차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관점의 다각화를 포함한 척도개발 연구의 학술지 게재 연도는 2009년이지만 이를 위한 자료수집과 일차 분석은 2006년 중반에 수행되어 이후의 다른 연구들에서 이 변수들에 대한 자료수집이 가능하였다.

타났다.

갈등반응행동

갈등반응행동의 측정은 기존 연구들(조유리·김경신, 2000; Kurdek, 1994; Margolin, Fernandes, Gorin, & Ortiz, 1982)을 참고로 현경자(2008)가 구성한 갈등반응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들이 이용되었다. 요인분석으로 나타난 6개 요인들 중 건설적 갈등반응행동 측정에는 이성적 대응 행동 요인 5개 항목이 이용되었다(예: '배우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배우자와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야기한다').⁹⁾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의 측정에는 공격적 행동 요인 3문항(예: '화난 감정을 거친 행동으로 표현한다,' '배우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말로 위협한다')과 부정적 태도 요인 3문항(예: '배우자나 자녀에게 화를 낸다,' '배우자에게 불평을 하거나 짜증을 부린다' 등)이 이용되었다. 응답자들은 배우자와 갈등을 느낄 때 그러한 갈등반응을 자신이 보이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척도점수는 요인별 총 응답의 평균이 이용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그런 반응이 높음을 뜻한다. 건설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남편 .78, .71, 부인 .75, .62로 대부분 수용 가능한 수준 .70(DeVeills, 1991)을 상회하였다.

9) 구조방정식모형분석에 고려된 척도들 중 관점다각화 척도의 항목들과 갈등반응의 건설적 행동 항목들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문항결합을 통해 2개 요인으로 묶었고(item parceling) 그 외 척도들은 요인분석에 의해 확인된 요인들을 관찰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부부친밀성

부부의 친밀성은 한국의 기혼남녀들이 제시한 결혼만족의 이유들을 내용분석한 결과(현경자·김연수, 2002)와 사랑의 구성요인(Aron & Westbay, 1996; Sternberg, 1986)을 참고하여 개발된 총 18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부부의 애정과 동반자로서의 친밀을 반영하는 두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애정 요인은 ‘우리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 ‘서로 행복해한다’ 등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전적으로 그렇다’)의 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친밀 요인은 ‘서로 의지한다’ ‘서로 마음을 합하여 살아간다’ 등 1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척도 점수는 응답의 평균이 이용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지각하는 배우자와의 친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척도와 애정 및 친밀 요인 각각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남편 .96, .92, .93, 부인 .96, .93, .95로 모두 우수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9.0과 AMOS 7.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기술 통계분석을 통해 저소득층 부부의 경제압박, 관점의 다각화, 부부갈등반응의 건설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 부부의 친밀성 수준을 파악하였다. 둘째,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셋째, 남편과 부인 각 집단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통해 경제압박, 관점다각화, 두 가지 갈등반응행동, 부부친밀성 간의 관계구조 적합도와 이론적 변인들 간의 관계 경로를 검토하였다. 모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추정되었다. 연구모

형과 대안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카이제곱(X^2) 차이검정 결과와 적합도 차이가 검토되었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값 보다 표본 크기에 덜 민감한 CMIN/df, NFI, CFI, TLI, RMSEA가 고려되었고, 적합도 판정 기준치로 CMIN/df는 3이하(Kline, 1998), RMSEA .06 이하, 그 외 .95 이상을 적용하였다(Hu & Bentler, 1999). 넷째, 구조모형분석에서 간접 및 총효과와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차적으로 부트스트랩(Bootstrap)분석을 하였고, 이중매개의 경우들(예: 경제압박과 부부친밀성 사이를 잇는 관점다각화와 건설적 행동의 매개효과)은 소벨(Sobel)의 검정방식을 이용하였다.¹⁰⁾ 본 연구가 일방향 가설에 근거한 점을 고려하여 $p < .10$ (이방향) 수준부터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끝으로 연구모형에 고려된 이론변수들 간의 관계구조가 남편과 부인집단 간에 동일한 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이용한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여 구조모형의 경로들 중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이순목·김한조, 2011).

연구결과

10) Shrout와 Bolger(2002)에 의하면 부트스트랩 방식이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에서 자유롭고 자료에서 n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관심 모수에 대한 신뢰구간을 토대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민감하게 파악해 낼 수 있게 한다. 여기서는 이중매개의 상세한 유의도를 AMOS의 부트스트랩 결과로 알 수 없어서 방법상의 한계가 있으나 소벨테스트를 이용하였다. 기존 연구(예: 윤수민·이재식, 2010)에서도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한 바 있다.

조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저소득층 부부들의 연령 범위는 27-59세(M=41.54세, SD=5.89)였고 평균 연령이 남편은 43.11세(SD=5.85), 부인은 39.97세(SD=5.52)였다. 남편과 부인의 평균 교육연수는 각각 12.91년(SD=2.01)과 12.41년(SD=1.73)으로 나타났다. 직업상태를 보면, 남편들의 94.4%가 직업이 있었으나 그 중 66.7%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직업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부인들의 경우, 42.1%가 직업이 있었고 그 중 19.1%만 정규직이었다. 이들 부부의 약 9%가 세금공제 전 총 가족소득이 1,200만원 미만인 최저 빈곤층이었고, 45.6%가 1,200만원 이상 2,400만원 미만이었으며, 45.1%가 2,4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부부들의 대다수인 96.7%가 초혼이고 결혼기간은 58.5%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19.1%가 20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약 37.2%만 주거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62.8%)는 전세, 월세, 공공 혹은 무상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였다.

주요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분석 결과

남편과 부인 각 집단의 경제압박, 관점다각화, 갈등반응의 건설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 부부친밀성 변수들의 상관계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있다. 이 표에 제시된 평균값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부부친밀성을 제외한 변수들의 평균은 남편보다 부인집단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평균차이 검정(t-test) 결과, 관점다각화의 수준만 부인집단이 남편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3.15, p<.01$).

예측한 바와 같이 남편과 부인이 느끼는 경제압박은 각각이 지각하는 배우자와의 친밀성과 부적으로 연관되었다($r_s=-.19, -.31, p_s<.05, .01$ 각각).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과 반응 및 관리에 젠더차를 시사한 기존 문헌들과 일

표 1. 주요변수들의 상관분석 결과와 평균 및 표준편차 (n=366)

남편	부인	경제 압박	관점 다각화	갈등반응		부부 친밀성	평균 (표준편차)
				건설적 행동	부정적 행동		
	경제압박	-	-.07	-.20*	.15*	-.31**	29.84(9.23)
	관점다각화	-.18*	-	.45***	-.20**	.42***	4.70(.64)
갈등 반응	건설적행동	-.16*	.51***	-	-.39*	.58***	3.54(.58)
	부정적행동	.20**	-.25**	-.25**	-	-.34***	2.80(.64)
	부부 친밀성	-.19*	.47***	.56***	-.36***	-	3.56(.80)
	평균 (표준편차)	28.99 (8.77)	4.48 (.71)	3.47 (.66)	2.68 (.72)	3.65 (.74)	-

각주) 대각선을 중심으로 왼쪽은 남편집단, 오른쪽은 부인집단의 분석결과이다.

* p<.05, ** p<.01, *** p<.001

관되게 경제압박은 남편집단에서만 관점다각화와 유의하게 부적으로 연관되었다($r=-.18$, $p<.05$). 남녀 집단 모두에서 경제압박과 관점다각화는 부적관계를 보였으나 남편집단은 경제압박을 심하게 경험할수록 관점다각화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반면 부인집단의 관점다각화는 경제압박이 높아지더라도 그러한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았다($r=-.07$, $p=ns$). 또한 기존 연구와 일관되게 경제압박이 높을수록 남편과 부인의 부정적 행동반응이 높아지고($r_s=.20$, $.15$, $ps<.01$, $.05$ 각각) 건설적 행동반응이 낮아졌다($r_s=-.16$, $-.20$ $ps<.05$ 각각). 관점다각화 역시 남편과 부인 집단 모두에서 예측대로 건설적 행동과 정적 상관($r_s=.51$, $.45$, $ps<.001$ 각각), 그리고 부정적 행동과 부적 상관($r_s=-.25$, $-.20$, $ps<.01$ 각각) 보였고 부부친밀성과는 정적으로 연관되었다($r_s=.47$, $.42$, $ps<.001$ 각각). 즉, 관점다각화 수준이 높을수록 건설적 행동반응이 높아지고 부정적 행동반응이 낮아지며 부부친밀성이 강화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남녀집단 모두에서 부부친밀성과 갈등반응의 건설적 행동은 정적 상관, 부정적 행동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남편 $r_s=.56$, $-.36$; 부인 $r_s=.58$, $-.34$, $ps<.001$ 각각). 요약하면, 본 연구에 고려된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남편과 부인집단 모두에서 문헌고찰을 통해 예측된 바와 일관되게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검토

관계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대안모형과의 비교

공변량구조 분석에 앞서 연구자료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전제하는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에 적합한지를 알아보았다. 측정변수들의 왜도, 첨도, 특이사례 여부 및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보았으나(Kline, 1998) 우려되는 결과는 없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모두 왜도 2이하, 첨도 7이하로 단일변량의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 Finch, & Curran, 1995).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부부친밀에 미치는 경제압박의 효과가 이 연구의 초점인 인지-행동 기제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모형이 연구모형이고 경제압박이 부부친밀성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직접경로가 추가된 부분매개모형이 대안모형으로 검토되었다.

표 2가 보여주듯이 남편과 부인 집단의 카이제곱(X^2) 값은 모두 유의미하였으나 적합도 지수는 거의 모두가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두 집단 모두에서 NFI, CFI, TLI는 기준치인 .95를 상회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고, RMSEA는 부인집단의 연구모형 값 .07을 제외하고 모두 .06 이하로 양호하였다. 남편과

표 2. 남편과 부인 집단의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모형	X^2	df	p	CMIN/df	NFI	CFI	TLI	RMSEA
남편	연구모형	51.38	36	.05	1.43	.94	.98	.97	.05(.01-.08)
	대안모형	51.01	35	.04	1.46	.94	.98	.97	.05(.01-.08)
부인	연구모형	66.78	36	.00	1.86	.93	.96	.95	.07(.04-.09)
	대안모형	58.59	35	.01	1.67	.94	.97	.96	.06(.0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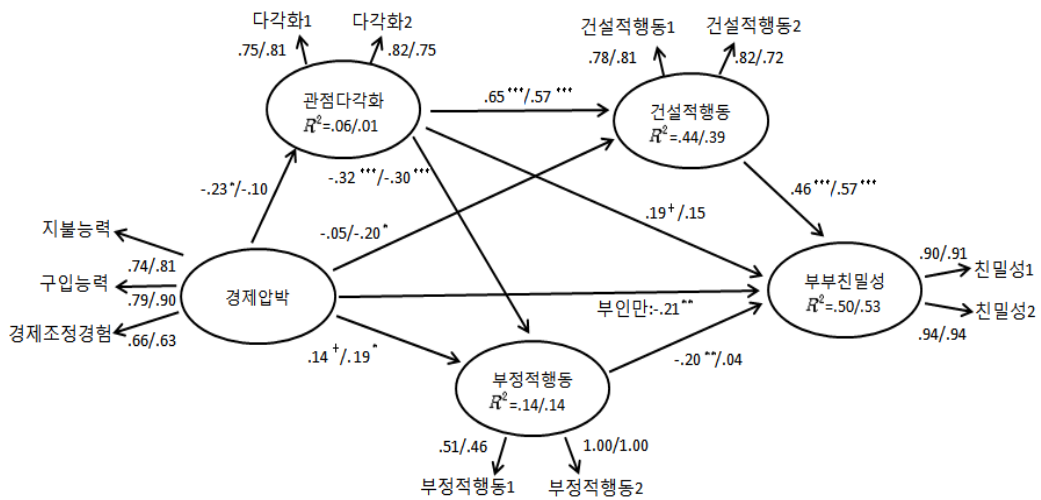
부인 각 집단에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에 대한 X^2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편집단의 X^2 차이는 0.37(df=1)로 유의하지 않아 대안모형의 내재모형인 간명한 연구모형이 자료에 의해 지지되었다. 반면 부인집단에서는 X^2 차이가 8.18(df=1)로 유의하여($p < .01$) 대안모형이 자료와 보다 부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남편집단은 완전매개모형인 연구모형을, 부인집단은 부분매개모형인 대안모형을 택하여 이론변수들 간의 관계구조를 살펴보았다.

경제압박, 관점의 다각화, 갈등반응행동, 부부친밀성 간의 관계구조

남편과 부인집단에서 선택된 관계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이 그림에서 각 경로의 화살표 위나 아래에 표시된 숫자는 남편/부인 순으로 각 집단의 표준화된 회귀계수이다. 경제압박에서 부부친밀성으로 이어지는 직접경로의 계수는 부분매

개모형으로 분석된 부인집단 만의 회귀계수이다. 그림 2에 제시된 모든 측정변인들과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남편집단의 결과를 우선 살펴보면, 예측대로 경제압박은 관점다각화와 부적적으로 연관되었고($\beta = -.23, p < .05$), 이어서 관점다각화는 건설적 행동을 돕고($\beta = .65, p < .001$) 부정적 행동을 낮추며($\beta = -.32, p < .001$) 부부친밀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였다($\beta = .19, p < .10$). 남편의 갈등반응행동이 부부친밀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예측과 일관되게 유의하여, 건설적 행동은 부부친밀과 정적으로($\beta = .46, p < .001$), 부정적 행동은 부적적으로($\beta = -.20, p < .01$) 연관되었다. 한편 경제압박이 남편의 건설적 행동에 미치는 예측된 부적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beta = -.05, ps = ns$) 부정적 행동에 미치는 예측된 정적효과($\beta = .14, p < .10$)는 유의하였다. 요약하면, 남편집단의 분석결과는 경제압박의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경제압박이 관점의 다각화와 갈등반응의 건설적 및 부정적 행동을 통해 부부친밀성에 관련된 경로 (회귀계수는 남편/부인 순)

로 인해 부부친밀성이 저하되는 효과가 관점 다각화와 각 갈등반응 행동을 통한 이중경로와 부정적 갈등반응을 통한 단일경로에 의해 예측대로 매개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¹¹⁾ 관점의 다각화가 부부친밀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자료에 의해 지지되어 이들의 관계가 예측대로 건설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부인집단의 경우, 경제압박이 관점다각화에 미치는 감축효과가 남편집단과 달리 유의하지 않았다($\beta = -.10, p = ns$). 하지만 부인집단의 관점다각화는 예측대로 남편집단과 일관되게 건설적 행동을 높이고($\beta = .57, p < .001$) 부정적 행동을 낮추는 것으로($\beta = -.30, p < .001$)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반응 중 건설적 행동이 부부친밀성에 미치는 정적인 직접효과는 예측대로 유의하였으나($\beta = .57, p < .001$), 부정적 행동과 부부친밀성 간의 예측된 부적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beta = .04, p = ns$). 반면 경제압박이 건설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 및 부부친밀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부인집단에서 모두 유의하였고($\beta = -.20, .19, ps < .05; \beta = -.21, p < .01$ 각각), 관점다각화가 부부친밀성에 미치는 정적인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 = .15, p = ns$). 요약하면, 부인집단의 경제압박은 부부친밀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고, 이들의 관계는 건설적인 갈등반응행동에 의해 일부 매개됨을 시사하였다. 한편 경제압박은 부인의 관점다각화를 유의하게 방해하지 않았지만 갈등반응의 건설적 행동을 저해하고 부정적 행동을 촉진하여 인지보다는 행동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집단의 관점다각화가 부부친밀성에

기여하는 경로들에서는 건설적 행동을 통한 매개효과만 발견되었고 예측과 달리 완전매개 형태가 시사되었다.

끝으로 경제압박, 관점다각화, 두 가지 갈등반응행동이 부부친밀성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 및 총 효과로 분해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남편집단의 경우,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압박이 관점다각화와 두 가지 갈등반응행동을 통해 부부친밀성에 관여하는 간접효과의 총합이 $-.18$ 로 유의하였다($p < .05$). 이러한 인지행동 매개변수들이 관여하는 다섯 가지 경로들 중 유의한 것은 관점다각화와 건설적 행동을 통한 간접효과($-.07, p < .10$)와 관점다각화와 부정적 행동을 통한 간접효과($-.02, p < .10$)로 이들은 간접효과 총합의 38.9%와 11.1%를 각각 차지하였다. 또한 이 두 경로들에서 경제압박이 관점다각화를 감축시킴으로써 부정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간접효과($.07, p < .05$)와 건설적 행동을 저해하는 간접효과($-.15, p < .10$)도 유의했다. 따라서 남편집단에서 경제압박이 부부친밀성을 저해하는 것은 경제압박이 관점다각화를 감축하여 건설적 행동이 저하되고 부정적 행동이 증가되는 경로를 통해 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관점다각화가 두 갈등반응행동을 통해 부부친밀성에 기여하는 간접효과의 총합($.36, p < .01$)은 총효과($.55, p < .05$)의 65%를 차지하며 유의하게 나타났고, 예측대로 그 자체는 건설적 행동을 촉진하여 부부친밀성을 향상시키는 간접효과($.30, p < .01$)와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켜 부부친밀성을 돕는 간접효과($.06, p < .05$)가 모두 유의했다. 특히 건설적 행동에 의한 매개효과가 부정적 행동에 의한 것보다 다섯 배 이상 컸다. 관점다각화가 부부친밀성에 미치는 직접효과($.19$) 또한 유의하여 이들

11) Cohen & Cohen(1983)에 따르면 각 경로에 관련된 직접효과들이 유의할 경우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추정할 수 있다.

표 3. 경제압박이 관점다각화와 갈등반응의 건설적 및 부정적 행동을 통해 부부친밀에 미치는 효과분해*

예측변수	내생변수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			
	관점다각화	건설적 행동	부정적 행동	부부친밀성
<u>경제압박</u>				
직접효과	-.23 [*] / -.10	-.05 / -.20 [*]	.14 ⁺ / .19 [*]	— / -.21 ^{**}
간접효과				-.18 [*] / -.15 ^{**}
via 다각화		-.15 ⁺ / -.06	.07 [*] / .03	-.04 / -.02
via 다각화 & 건설적 행동				.07 [*] / -.03
via 다각화 & 부정적 행동				.02 [*] / .00
via 건설적 행동				.02 / -.11 ^{**}
via 부정적 행동				-.03 / -.01
총효과	-.23 ⁺ / -.10	-.20 ⁺ / -.25 ^{**}	.22 [*] / .22 [*]	-.18 [*] / -.36 ^{**}
<u>관점다각화</u>				
직접효과		.65 ^{***} / .57 ^{***}	-.32 ^{***} / -.30 ^{***}	.19 ⁺ / .15
간접효과				.36 ^{**} / .31 ^{**}
via 건설적 행동				.30 ^{**} / .32 ^{***}
via 부정적 행동				.06 [*] / -.01
총효과		.65 [*] / .57 ^{**}	-.32 ^{**} / -.30 [*]	.55 [*] / .47 [*]
<u>건설적 행동</u>				
직접효과				.46 ^{***} / .57 ^{***}
<u>부정적 행동</u>				
직접효과				-.20 ^{**} / .04

* 표에 제시된 효과는 표준화계수이고 남편/부인 순으로 표시됨.

⁺p < .10, *p < .05, **p < .01, ***p < .001

의 관계가 두 갈등반응행동에 의해 부분매개 되리라는 가설이 지지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부인집단의 경우, 경제압박이 부부친밀성을 저해하는 직접효과(-.21, p<.05)가 총효과(-.36, p<.01)의 약 58%를 차지했고, 나머지 간접효과를 보여주는 경로들 중에는 남편집단과 달리 건설적 행동을 통한 간접효과(-.11, p<.01)

만 유의했다. 즉 부인집단에서는 경제압박이 건설적 행동을 감축시켜 부부친밀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컸다. 다음으로, 부인집단의 관점다각화가 부부친밀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총합(.31, p<.01)은 직접효과(.15)의 약 두 배 이상 크고 유의하였는데, 이는 거의 건설적 행동을 통한 간접효과(.32, p<.001)이고 부정적 행동을

표 4.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에 대한 측정 및 구조 동일성 적합도 분석결과

		X ²	자유도	TLI	CFI	RMSEA
연구모형: 완전매개	기저모형	118.16	72	.96	.97	.04(.03, .06)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123.92	78	.96	.97	.04(.03, .05)
	구조동일성 제약모형	133.69	86	.96	.97	.04(.03, .05)
대안모형: 부분매개	기저모형	109.60	70	.96	.98	.04(.03, .06)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115.70	76	.97	.98	.04(.02, .05)
	구조동일성 제약모형	126.89	85	.97	.98	.04(.02, .05)

통한 간접효과(-.01, p=ns)는 미미했다.

결론적으로 남편과 부인집단의 결과를 요약해서 비교하면, 경제압박이 관점다각화를 감축하여 건설적 행동을 저해하고 부정적 행동을 촉진하여 부부의 친밀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본 이 연구의 완전매개 가설은 남편집단에서만 지지되었다. 부인집단에서 경제압박은 남편집단과 달리 직접 부부친밀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컸고, 관점다각화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예측대로 약한 가운데 직접 건설적 행동을 감소시킴으로써 부부친밀성을 저해하는 간접효과만 가설대로 지지되었다. 한편 남편들의 관점다각화 그 자체는 예측대로 건설적 행동을 돕고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켜 부부친밀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경제압박이 가해질 때 관점다각화의 그러한 긍정적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경제압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부인들의 관점다각화는 부정적 행동의 감소보다는 건설적 행동의 증가를 통해 부부의 친밀성에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남편과 부인집단의 차이 검토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하나의 부부체계로서

경제압박 상황에 함께 대응하므로 공통경험이 상당한 가운데 젠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교차타당화(cross-validation) 방식을 적용하여 각 경로계수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¹²⁾ 연구모형인 완전매개모형과 대안모형인 부분매개모형 각각에 대한 남편과 부인집단의 측정 및 구조 동일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두 모형 모두에서 남편과 부인 집단 간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들과 각 경로 추정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구조동일성 제약 모형들의 적합도가 TLI, CFI, RMSEA 측면에서 기저모형보다 나빠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호한 수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고,

12) 이 연구의 경우, 남편집단에서는 연구모형과 일관된 완전매개모형이, 그리고 부인집단에서는 경제압박이 부부친밀성을 저해하는 경로가 포함된 부분매개모형이 지지되어 형태의 부분동일성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주요변수들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가 두 집단 간에 유사하고, 경로분석 결과도 그림 2에 나타나듯이 경제압박과 부정적 행동이 각기 부부친밀성을 저해하는 경로를 제외하고는 기존문헌들에서 시사된 바와 일관된 방향으로 남편과 부인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나 남편집단의 이론구조 동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부분매개모형의 그러한 수치는 오히려 개선됨을 보였다. 완전매개모형에서는 TLI, CFI, RMSEA의 변화가 거의 부재한 반면 부분매개모형에서는 기저모형에 비해 측정 및 구조동일성 제약모형의 TLI가 .01 상승하였고 RMSEA의 신뢰구간 상하한 값이 각각 .01 하락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과 부인집단 간에 부분매개모형의 일반화가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남녀집단 비교와 측정 및 구조 동일성 검토에는 부분매개모형에 대한 분석결과가 이용되었다.

표 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였고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제약모형의 카이제곱 값의 차이가 6.1($\Delta df=6$)로 유의하지 않아 남편과 부인집단 간에 교차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다음 단계에서 모형 내 9개 경로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구조동일성 제약모형과 측정동일성 제약모형의 카이제곱 값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11.19(< 임계치 16.92, $\Delta df=9$)로 유의하지 않았고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의 차이도 미미하여 남편과 부인집단 간에 구조동일성도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남편과 부인집단 사이에 혹시 존재할지 모르는 경로계수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남편과 부인 각 집단의 모수추정치 9개에 동일성 제약을 가해 얻은 회귀가중치와 각 경로별로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기저모형의 카이제곱 차이 및 TLI 지수의 변화량을 검토한 결과,¹³⁾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이 부부친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유일하게 발견되었다. 이 경로에서 남

편과 부인의 경로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카이제곱 변화량($\Delta X^2=4.233$, $\Delta df = 1$)이 유의했고($p<.05$), 회귀가중치에 의하면,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은 남편집단에서 부부친밀성을 유의하게 낮출 만큼($b=-.181$, $p<.01$) 영향력을 보인 반면 아내집단에서는 부부친밀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했고 관계방향도 정적으로 나타났다($b=.037$, $p=ns$).

논 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는 저소득층 부부가 갈등에 대응하고 친밀성을 향상하는데 강점이 되는 관점다각화와 같은 인지역량이 경제압박으로 감축되고 이어서 부부의 갈등반응행동과 연관되어 부부친밀성이 저해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저소득층 남편과 부인의 인지역량과 결혼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가족스트레스모형에 기초한 연구들(예: 현경자, 2008; Conger et al., 1990, 1999)과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행동 반응의 젠더 차이(Smeets et al., 2009; Taylor et al., 2000)에 근거하되 기존에 검토되지 않은 인지행동 기제에 초점을 맞추어 저소득층 부부의 친밀성을 방해하거나 향상하는 데 남녀에게 공통적으로 혹은 상이하게 기여하는 인지-행동 요인 및 이들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예측대로 남편집단에서는 경제압박이 관점다각화를 감축시키고 이를 통해 건설적 행동이 감소되고 부정적 행동이 증가되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부부친밀성이 저해되는 완전매개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압박

13) 유의한 차이가 한 경로에서만 나타났고 지면이 한정되어 분석결과에 대한 표는 생략하였다.

을 겪는 남편들의 인지적 위축이 건설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 양 방향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여 부부친밀성에 미치는 역기능적 영향의 파장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부인집단에서는 경제압박이 관점다각화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부부친밀성을 저해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관점다각화의 매개 없이 건설적인 갈등반응 행동을 감소시킴으로써 부부친밀성이 저해되는 부분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기존의 가족스트레스 모형에 의한 연구들(예: Conger et al., 1990, 1999)이 경제압박과 같은 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와 역기능의 경로를 통해 결혼의 질을 저해하는 기제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 왔다면, 이 연구는 저소득층 부부에게 잠재되어 있는 긍정적인 인지행동 역량이 어떻게 경제압박으로 인해 방해받을 수 있는지, 또 남편과 부인집단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추가하여 의의가 있다.

경제압박과 부부친밀성 간의 관계구조 모형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편과 부인집단에서 각각 완전매개와 부부매개로 확인되어 그 형태가 부분적으로 동일함을 시사하지만 교차타당화 방식을 각 모형에 적용한 다집단 분석결과, 측정 및 구조동일성 가정이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과 부인 집단에서 이론변수의 의미가 동일하고 이론변수들 간의 관계구조가 남편과 부인집단의 특성에 상관없이 안정적임을 가정할 수 있다(이순문·김한조, 2011). 이에 따라 이론변수들 간의 세부적 관계분석에서 나타난 첫 번째 주요 논점을 살펴보면, 경제압박으로 부부친밀성이 저해되는 과정의 주요 경로가 남편과 부인집단에서 상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와 사회인지 관점에서 젠더 차이에

기초하여 이해될 수 있다. 즉, 스트레스가 주의(attention)와 같은 사회인지를 위축시키는 (Chajut & Algom, 2003)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행동반응의 젠더 차이가 가족과정에서 남편과 부인의 인지적 반응은 물론 행동반응의 차이를 빚어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이해된다.

스트레스에 대해 남성이 신체생리적으로 즉각 반응하는 반면 여성은 스트레스 촉발요인으로부터 주의를 이탈하여 다른 데 관심을 쏟음으로써 부적인 신체생리적 반응을 오히려 덜 나타내는 경향(Smeets et al., 2009)과 일관되게 이 연구에서 경제압박은 인지적 측면에서 남편집단의 관점다각화를 직접 감축하는 반면 여성의 관점다각화는 경제압박의 부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러한 인지적 반응은 남편의 경우 건설적인 갈등반응 행동이 저해되고 부정적 행동이 촉진되어 부부의 친밀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이어져 스트레스에 대한 행동반응에 있어서 남성의 fight-or-flight 양식의 영향을 반영하고, 부인집단에서 관점다각화가 건설적 행동을 통해 부부친밀성을 향상할 수 있는 데에는 여성의 tending-and-befriending 행동(Taylor et al., 2000)이 밑바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론은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행동 반응의 젠더 차이와 이 연구에서 시사된 긍정적인 사회인지행동의 젠더 차이가 실제로 연동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연구를 통해 향후 확인되어야 한다.

경로계수의 집단 간 차이 분석에서 갈등반응의 부정적 행동이 부부친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일하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 갈등반응 행동이 부부친밀성을 저해하는 직접효과가 남편집단에서는 기존 이론들과

일관되었지만 부인집단에서 그러한 부정적 행동은 부부친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와 자료의 일부를 공유하는 선행연구(현경자, 2008)에서 남편의 부정적 갈등반응이 자신과 부인의 결혼만족을 저해하여 결혼 불안정을 강화한 반면 부인의 그러한 갈등반응은 자신과 남편의 결혼만족을 유의한 수준에서 저해하지 않은 결과와도 일관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저소득층 남편들의 결혼의 질은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을 표출하는 것으로 인해 손상되지만 저소득층 부인들의 그러한 표출은 자신의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젠더 차이가 무엇에 기인하며,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추후 연구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주요 논점은, 경제압박과 연관된 남편과 부인의 인지행동 반응에 차이가 있고, 관점다각화의 평균 수준이 부인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관점다각화 자체의 기능과 역할은 예측대로 이 두 집단 간에 유사함이 더 컸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남편들의 관점다각화는 기대한 대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건설적 행동을 촉진하고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켜 부부친밀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경제압박이 가해질 때 그러한 긍정적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들의 관점다각화도 건설적 행동을 돕고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남편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또 이 두 집단에서 관점다각화가 건설적 행동을 통해 부부친밀성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30이상으로 다른 직간접 효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컸다는 점에서 유사했고, 경제압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부인의 관점다각화는 건설적 행동을

통해 부부친밀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압박 상황에서도 관점의 다각화를 적극 활용하는 저소득층 부인들은 스트레스로부터 주의를 돌려 자녀양육이나 경제적 곤란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법에 관심을 쏟으며 배우자와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부인집단의 사회적 인지역량은 저소득층 부부들 중 남편의 가장으로서의 가계 책임 부담을 이해하고 자녀양육에 힘을 쏟으며 시간제 일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하여 가족을 유지하는 부인들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남편집단에서도, 비록 경제압박의 위협을 받지만, 관점다각화 자체는 인지역량으로서 부부친밀성을 도울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이 된다. 경제압박과 같은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 남편의 관점다각화가 부인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감축될 수 있어 표면적으로 그 역량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 건설적 행동을 촉진하고 부정적 행동을 억제하며 부부친밀성까지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부부를 위한 교육과 상담, 사회적 지원에서 이러한 지식을 기초로 남편들의 인지역량이 회복될 수 있게 돕는 접근이 필요하고, 이러한 남편의 잠재력 발현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일지에 대한 연구도 중요해 보인다.

끝으로 논의할 점은, 경제압박이 부부친밀성에 미친 효과가 남편집단에서는 간접적이었던 반면 부인집단에서는 일부 직접적이었던 것이다. 즉 남편집단의 경우 경제압박은 부부친밀성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 관점다각화의 감축과 두 갈등반응, 특히 건설적 행동의 감소를 통해 부부친밀성을 저해하는 완전매개형태를 보여 기존의 가족스트레스모형에 기초한

완전매개모형연구들(예: 권희경, 2009; 장춘미, 2009; 조준배, 2009; 현경자, 2008; Conger et al., 2002; Kinnunen & Feldt, 2004; Kwon et al., 2003; Vinokur et al., 1996)과 일관된 패턴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Berkowitz(1989)의 좌절-공격이론이 합의하는 바대로, 디스트레스와 갈등반응행동을 통해 부부관계가 저해되는 과정이 관점다각화와 건설적 행동이라는 긍정적 인지행동이 방해받는 경로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어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부인집단에서는 긍정적 사회인지가 경제압박과 무관하고 경제압박이 갈등반응행동을 통해 그리고 직접적으로 부부 친밀성을 저해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 뿐 아니라 남편집단의 결과와도 차별화된다. 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해 보인다. 첫째, 경제압박감에 대한 부부 간의 귀인(attribution) 차이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남편집단은 경제압박을 가장인 자신의 가계책임으로 보아 경제곤란 극복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관점다각화를 저해하고 이어서 역기능적 갈등반응을 보이는 반면, 부인집단은 사회화된 젠더 역할로 가계책임감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오히려 경제압박은 남편의 가장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켜 부부관계를 직접 저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나라 부부들이 경제활동 및 가계책임에 대해 젠더화된 인식과 귀인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런 성향이 부부친밀성을 포함한 결혼의 질과 연관되는지를 밝힐 수 있는 연구를 통해 앞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압박이 부부친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는 낙관성과 같은 성격이나 경제압박에 따른 긴장, 불안, 우울 같은 정서적 고통 또는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알코

올 남용 등 심신건강 변인들이 관련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인지-행동 기제와 아울러 개인의 성격, 정서, 심신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저소득층 부부의 경제압박과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가 젠더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

이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자료가 2006년 말에서 2007년 초에 수집되어 연구결과를 2012년 현재에 적용하는 데 경제사회 환경적 변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긍정적 인지행동 기제에 초점을 둔 대안적인 가족스트레스모형의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설명연구이므로 기술연구와 달리 몇 년 간의 시차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저소득층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드물고 최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이전보다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압박으로 인한 저소득층 부부의 고충과 화합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경제압박은 Conger 등(1999)이 사용한 세 가지 지표로 매우 포괄적으로 측정되어 저소득층 부부의 경제난을 심도있게 반영하므로 현재 저소득층 부부의 삶을 위한 함의를 얻는 데 유용해 보인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경제압박의 측정 기준이 지난 1년으로 한정되어 그 보다 장기화된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3-5년 간 축적되어 온 경제압박의 영향을 종단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13개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구청 자료를 통해 각 구에서 저소득층이 밀집된 동을 선정하는 등 표집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에 노력했으나 저소득층 부부 선정이 편의 표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여러 지역 저소득층 부부들의 경험을 고루 반영하기 힘들므로, 이 연구결과를 지역 환경이 다른 곳의 저소득 부부들에게 일반화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에 기초하므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시간적 차이를 염두에 두고 개념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부부가 경제압박에 당면하여 겪는 갈등상황에서의 인지역량이 행동과 연관되어 부부친밀성이라는 결혼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인과관계의 추정이 보다 용이한 실험연구나 종단연구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행동 반응의 젠더 차이 이론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된 추론들 또한 설문조사의 한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저소득층 부부의 남편과 부인이 경제압박을 경험하는 데 있어 인지와 행동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위의 논의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외 다른 경로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저소득층 부부가 경제압박에 대응하여 보다 나은 삶을 이루는 데 관여할 수 있는 다른 인지, 정서, 행동적인 잠재요인들을 밝히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관점다각화와 같은 인지기제가 경제적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내는 부부들을 구별해내는데 유용한지도 추후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주의가 경제적 곤란 극복에 선택적으로 강화되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부인의 관점다각화가 보완하고 그것이 부부의 상호보완적인 적극적

대처를 도와 가족의 안녕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남편과 부인의 관점다각화 수준이 모두 높을 때 부부의 화합과 역경 극복이 촉진되는지, 또 남편과 아내의 관점다각화가 자신 뿐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긍정적인 심리행동과 안녕을 도와 역경극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희경 (2009). 가족외부 지원의 경제적 압박 완화 효과: “경제적 압박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 모델”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2), 111-131.
- 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현주·안현의 (2011). 공감능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57-174.
- 윤미혜·신희천 (2009). 일상사건의 공유를 통한 부부의 친밀감 발달과정: 지각된 배우자 반응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7-32.
- 윤수민·이재식 (2010). 고용경쟁력과 조직시민 행동 사이의 관계: 직무 불안정성과 조직불안 및 직무열의의 이중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3(2), 297-315.
- 이남옥·최승미·조현·권정혜·오현주·정정숙(2011). 부부상담연구소를 방문한 내담자 특성 및 조기종결 관련 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543-575.

- 이순목·김한조 (2011). 구조방정식모형의 일
반화 또는 집단차 연구를 위한 다집단 분
석의 관행과 문제점. *사회과학*, 43(1), 63-
112.
- 이우경·방희정 (2008). 성인기 여성의 마음챙
김, 자기-자애, 심리적 안녕감 및 심리
증상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4), 127-146.
- 장춘미 (2009). 스트레스와 결혼만족 간의 관
계에 대한 부부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
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153-171.
- 조유리·김경신 (2000). 부부의 갈등대처행동
과 결혼만족도-광주지역 거주자를 중심으
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22.
- 조준배 (2009).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이 부부
갈등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자아존중감과 자기생활만족도 그리고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
지학*, 27(12), 153-174.
- 현경자 (2008). 저소득층 부부들의 경제적 스
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결혼결과: 탄력적
대응을 돕는 기혼자의 자기해석. *한국심리
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3), 49-79.
- 현경자 (2009). 역경극복을 돕는 성인 한국인
의 긍정성 탐색: 긍정적 태도 척도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13-42.
- 현경자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두 문화정체
성과 결혼의 안녕: 관점의 다각화에 기반
한 자기긍정성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
학회지*, 64(2), 241-271.
- 현경자·김연수 (2002). 기혼남녀의 결혼만족
이유에 대한 질적 연구: 결혼만족 근원
의 유사점과 차이점. *한국사회복지학회지*,
49(2), 225-263.
- 홍세희 (2010). 구조방정식모형: 중급. 고급연구
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8. S & M 리서치 그
룹.
- Almela, M., Hidalgo, V., Villada, C., Espin, L.,
Gomez-Amor, J., & Salvador A. (2011). The
impact of cortisol reactivity to acute stress on
memory: Sex differences in middle-aged
people. *Stress*, 14(2), 117-127.
- Aron, A., & Westbay, L. (1996). Dimensions of
the prototype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535-551.
- Bakker, A. B., Shimazu, A., Demerouti, E.,
Shimada, K., & Kawakami, N. (2011).
Crossover of work engagement among
Japanese couples: Perspective taking by both
partner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6(1), 112-125.
- Ber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1), 59-73.
- Birditt, K. S., Brown, E., Orbush, T. L., &
McIlvane, J. M. (2010). Marital conflict
behaviors and implications for divorce over 16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5),
1188-1204.
- Bradbury, T. N., & Fincham, F. D.(1992).
Attributions and behavior in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4), 613-628.
- Burpee, L. C. & Langer, E. J. (2005). Mindful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2(1), 43-51.
- Carrere, S., Buehlman, K. T., Gottman, J. M.,
Coan, J. A., & Ruckstuhl, L. (2000).

- Predicting marital stability and divorce in newlywed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1), 42-58.
- Carson, S. H. & Langer, E. J. (2006). Mindfulness and self-acceptance. *Journal of Rel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24(1), 29-43.
- Chajut, E. & Algom, D. (2003). Selective attention improves under stress: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social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231-248.
- Cicchetti, D., Ackerman, B. P., & Izard, C. E. (1995).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5), 1105-1117.
- Cohen, J., & Cohen, P. (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Hillsdale, NJ: Erlbaum.
- Conger, R. D., Elder, Jr., G., Lorenz F. O., Conger K. J., Simons R. L., Whitreck, L. B., Huck, S., & Melby J. N., (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3), 643-656.
- Conger, R. D., Elder, Jr., G., Simons, R. L., & Ge, X. (1993). Husband and wife differences in response to undesirable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4(1), 71-88.
- Conger, R., D., Rueter, M., A., & Elder, Jr., G. (1999). Couple resilience to economic pres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54-71.
- Conger, R. D., Wallace, L. E., Sun, Y., Simons, R. L., McLoyd, V. C., & Brody, G. H. (2002). Economic pressur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2), 179-193.
- DeVellis, R. (1991).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Inc.
- Fincham, F. D., & Beach, S. R. H. (1999). Conflict in marriage: Implications for working with coupl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1), 47-77.
- Fredrickson, B. L. (2000). Cultivating positive emotions to optimize health and well-being. *Prevention & Treatment*, 3, 1-25.
- Gottman, J. M., & Levenson, R. W. (1992). Marital processes predictive of later dissolution: Behavior, physiology, and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2), 221-233.
- Gottman, J., Markman, J., & Notarius, C. I. (1977). The topography of marital conflict: A sequential analysis of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3), 461-477.
- Hobfoll, S. E., Nadler, A., & Leiberman, J. (1986). Satisfaction with social support during crisis: Intimacy and self-esteem as critical determina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2), 296-304.
- Hu, L. T.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Hyde, J. S. (2005). The gender similarities hypothesis. *American Psychologist*, 60(6), 581-592.
- Kinnunen, U. & Feldt, R. (2004). Economic stress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couples:

- analyses at the dyadic level.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5), 519-532.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Kurdek, L. A. (1994). Conflict resolution styles in gay, lesbian, heterosexual nonparent, and heterosexual parent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3), 705-722.
- Kwon, H. K., Rueter, M. A., Lee, M. S., Koh, S., & Ok, S. (2003). Marital relationships following the Korea economic crisis: Applying the family stress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2), 316-325.
- Langer, E. J. (1989). *Mindfulness*. 이양원 옮김 (2006). 마음챙김. 서울: 동인.
- Langer, E. J. (2000). Mindfulnes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6), 220-224.
- Langer, E. J. (2002). Well-being: Mindfulness versus positive evaluation. In C. R. Snyder (E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pp. 214-230). Oxford University Press.
- Laurenceau, J. P., Barrett, L. F., & Rovine, M. (2005). The interpersonal process model of intimacy in marriage: A daily-diary and multileve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314-323.
- Long, E. R., & Andrews, C. D. (1990). Perspective taking as a predictor of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1), 126-131.
- Margolin, G. F., Fernandez, V., Gorin, L., & Ortiz, S. (1982). The conflict inventory: A measurement of how couples handle marital tension. *Paper presented at the 16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Los Angeles, CA.*
- Miller, G. E., & Bradbury, T. N. (1995). Ref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attributions and behavior in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9(2), 196-208.
- Rausch, S. M., Auerback, S. M., & Gramling, S. E. (2008). Gender and ethnic differences in stress reduction, reactivity, and recovery. *Sex Roles*, 59, 726-737.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meets, T., Dziobek, I. & Wolf, O. T. (2009). Social cognition under stress: Differential effects of stress-induced cortisol elevations in healthy young men and women. *Hormones and Behavior*, 55(4), 507-513.
- Sternberg, R.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2), 119-135.
- Taylor, S. E., Klein, L. C., Lewis, B. P., Gruenewald, T. L., Gurung, R. A. R., & Updegraff, J. A. (2000). Biobehavioral responses to stress in females: Tend-and-befriend, not fight-or-flight. *Psychological Review*, 107(3), 411-429.
- Teasdale, J. D., Moore, R. G., Hayhurst, H., Pope, M., & Williams, S., & Segal, V. (2002). Metacognitive awareness and prevention of relapse in depression: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2), 275-287.
- Vinokur, A. D., Price, R. H., & Caplan, R. D. (1996). Hard times and hurtful partners:

- How financial strain affects depress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unemployed persons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1), 166-179.
- Vishnevsky, T.,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 Demakis, G. J. (2010). Gender differences in self-reported posttraumatic growth: A meta-analysi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4(1), 110-120.
- Wells, A. & Matthews, G. (1994). *Attention and emotion: A clinical perspective*. Hillsdale, NJ; Erlbaum.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pplications*(pp.56-75), Newberry Park, CA: Sage.
- 1 차원고접수 : 2012. 7. 27.
심사통과접수 : 2012. 8. 31.
최종원고접수 : 2012. 9. 28.

Economic Pressure and Couple Intimacy: Taking Multiple Perspectives and Conflict Response Behavior as Mediators among the Low Income Husband and Wife

Kyoung-Ja Hyun

Center for Woori Social Work Research

Sun-Young Par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eimyung University

Economic pressure narrows social cognition that facilitates coping with marital conflict as well as couple intimacy.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marital processes linking economic pressure to the cognitive-behavioral mechanism, i.e., taking multiple perspectives(MP) and conflict response behaviors(CRB) that, in turn, affect couple intimacy among 183 low-income couples residing in Seoul. Given the gender differences in biobehavioral responses to stress as marked by a pattern of “tend-and-befriend” among women and of “fight-or-flight” among men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how such causal paths differ across gender. As expected,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supported a full mediation model for the husband. In this group, economic pressure was linked to less of MP that, in turn, caused both the decrease of constructive CRB and the increase of negative CRB, thus resulting in the reduction of couple intimacy. For the wife, data supported a partial mediation model in which the direct effect of economic pressure on couple intimacy was significant. In the wife group economic pressure did not contract MP, as suggested by the stress response theory, and directly reduced constructive CRB that, in turn, affected couple intimacy. Although within both groups, MP, as expected, promoted constructive CRB and decreased negative CRB, suggesting its potential as a psychological resource, its positive effect was cancelled out in the husband group due to the impact of economic pressure. However, in the wife group, MP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couple intimacy through constructive CRB. Results of the multigroup analyses suggested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only one path leading from negative CRB to couple intimacy. While negative CRB decreased couple intimacy significantly among the husband, it did not show such an effect among the wife. Finally,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theory development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low-income couple, economic pressure, multiple perspectives, intimacy of couple relationship, conflict response behavior, cognitive-behavioral mechanism